■ 수원FC 조덕제 감독

“9위 이내·11승 이상 목표”

우리를 꼭 이겨야할 상대방 압박감 더 크다
아직 배고픈 팀…죽기살기로 경기 임할 것

2016시즌 K리그 클래식(1부리그)으로 승격한 수원FC는 서귀포에 이어 경남 거창에서 동계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다. 축구계는 수원FC가 ▲경험부족 ▲많은 선수단 교체 등으로 인해 고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원FC는 2003년 실업축구 내셔널리그에서 출발해 2013년 챌린지(2부리그)에 진입했다. 지난해 승격을 일군 선수단 33명 중 19명의 얼굴이 바뀌었다. 그러나 18일 거창스포츠파크에서 만난 조덕제(51) 감독은 평온했다. “곧장 챌린지로 강등되면 승격의 의미가 없다”며 “우리의 도전에 한계는 없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큰 목표를 이뤘는데.
“단잠을 자고나니 현실이더라. 승점 자판기가 될 순 없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모였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 클래식의 패턴과 흐름을 익혀가고 있다.”

-줄곧 국내에 머문 이유는.
“지난해 초부터 서귀포, 거창을 생각했다. 이곳 숙소가 마땅치 않아 모텔에 머물며 인근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지만, 이쯤은 감수할 수 있다.”

-클래식 경험자들이 적다.
“그래서 주장 이승현, 이광훈 등을 데려왔다. 아킬레스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을 덜어준다. 우리를 꼭 이겨야 할 상대의 압박감이 더 크다. 챌린지처럼 공격에 마냥 무게를 실을 수 없어도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클래식 첫 해 목표는 뭔지.
“순위에서 9위 이내 진입과 11승 이상이다. 불가능할 건 없다. 프로의식을 갖고, 초반 리듬을 잃지 않으면 된다. 클래식은 경기전개속도가 빠르고 심판 휘슬도 적다. 이 점을 강조했다. 1급 선수답게 뛰자고 했다. 상을 타도 꽃 한 송이, 축하전화 한 통 없는 설움의 챌린지로 돌아가지 않겠다.”

-살림살이는 나아졌나.
“많이 좋아졌어도 풍족하진 않다. 지난해 선수단 연봉 규모가 15억원이 안 됐다. 아직까진 배고픈 팀이다. 억대 연봉자는 아주 적다. 그래도 부족함만 보면 끝이 없다. 차가운 시선과 냉대를 단합으로 극복한 지난해를 떠올리며 죽기살기로 할 생각이다.” 거창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전북 김기희, 중국 상하이 선화로 이적

전북현대 중앙수비수 김기희(27)가 18일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선화로 이적했다. 김기희는 올 겨울 이적시장이 시작되자마자 상하이 선화와 허베이 종지로부터 동시에 러브 콜을 받았고, 고심 끝에 상하이 선화를 택했다. 2011년 대구FC에서 프로에 데뷔한 김기희는 2012런던올림픽 동메달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고, 알 사일리야(카타르)를 거쳐 2013년부터 전북에서 활약해왔다. 슈퍼리그에는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장현수(광저우 푸리), 김주영(상하이 상강), 조용형(스자좡 용창) 등 4명의 한국 센터백들이 몸담고 있다.

대전 시티즌, 2016시즌 연간회원권 판매 개시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대전 시티즌이 18일 연간회원카드와 티켓북 2가지 형태로 2016시즌 연간회원권 판매를 시작했다. 연간회원권은 티켓링크(http://sports.ticketlink.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고, 3월 26일 대구FC와의 홈경기부터 남문광장 우측 매표소(연간회원 구매 전용창구)에서도 판매된다. 대전시티즌 홈페이지(www.dcfc.co.kr)와 사무국(042-824-2002)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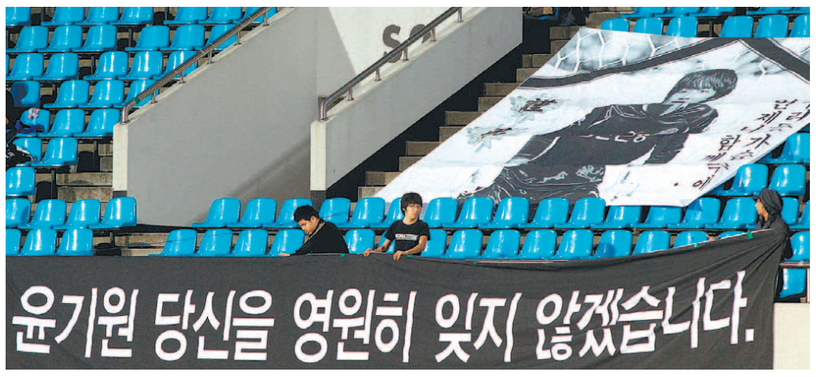
더 타임스 “루니, 무릎 부상으로 2개월 재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18일(한국시간) “웨인 루니가 무릎 부상으로 앞으로 2개월간 뛸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 루니는 13일 선덜랜드전에서 무릎 통증을 느꼈고, 이후 정밀검진에서 2개월 가량 재활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시즌 초반 부진했던 루니는 1월 이후 치른 9경기에서 7골을 기록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윤기원 사망 의혹’ 검찰 재조사 착수

2011년 5월 휴게소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 자살 발표…추적 60분 의혹 제기
부산지검, 관계자 참고인 신분 소환 중



자살로 결론이 났던 윤기원(전 인천)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팬들은 윤기원이 세상을 떠난 2011년 5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과의 원정경기 때 추모 현수막을 내걸었다. 스포츠동아DB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이 불거진 2011년 세상을 떠난 당시 인천 유나이티드 골키퍼 윤기원(당시 23세)의 사망 관련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계 관계자는 18일 “검찰이 윤기원 사망과 관련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 지난해 말부터 부산지방검찰청이 이번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축구인도 “검찰이 다시 수사 중이다. 경찰로부터 일체의 자료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망주로 꼽히던 윤기원은 2011년 5월 6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수석에는 타다 만 번개탄과 맥주캔, 현금 100만원이 담긴 봉투가 있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는 “시신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이다. 타살 증거가 없다”며 단순 자살로 발표했다. 여러 추측을 낳은 현금 100만원에 대해 인천 구단은 당시 “안종복(60) 전 사장의 퇴임 이벤트를 위해 선수단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의 일부”라고 밝혔다.

2010시즌 K리그 1군에 데뷔해 유망주로 성장한 선수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작스레, 그것도 하루 수천 명씩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살할 리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변함없는 유족들의 입장이다. 당시 경찰은 “윤기원의 차량은 (2011년 5월) 4일 밤 만남의 광장에 들어왔고, 윤기원은 1번 밖으로 나왔을 뿐 이후 계속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휴게소 CCTV 영상을 내세웠고, 시신은 차량 진입 후 이틀 가량 지나서야 발견됐다.

그러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던 CCTV 자료는 현재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윤기원의 부모가 사용 중인 해당 차량 내부는 번개탄에 의한 그을림 등의 흔적이 없다. 이렇듯 석연찮은 여러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윤기원의 사망은 자살이 아닌, 누군가에 의한 타살일 것이라는 시선이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KBS ‘추적 60분’이 17일 〈죽음의 그라운드-윤기원, 그는 왜 죽었나?〉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늦은 밤 CCTV 영상만으로 차량 번호판과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고 ▲프로그램 제작 인터뷰에 응한 제보자들은 승부조작 파문이 한창인 2011년 해외로 이적한 선수 A가 윤기원의 죽음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방송 이후 각종 축구 관련 게시판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윤기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유족 측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해주길 바라고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프로축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23·24일 亞챔스 조별리그 4경기 열려
K리그 클래식 내달 12~13일 킥오프

프로축구가 겨울방학을 끝내고 다음주부터 기지개를 켠다. 첫 무대는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2강전이다.

지난해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챔피언 전북현대는 23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FC도쿄(일본)를 상대로 조별리그 E조 1차전을 치른다. F조의 FC서울은 같은 날 오후 8시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와 원정경기를 펼친다. 서울은 태국 원정에 대비해 20일 출국한다.

24일에도 2경기가 예정돼 있다. G조의 수원삼성은 오후 7시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감바 오사카(일본)와 조별리그 1차전을 소화한다. 플레이오프를 거쳐 조별리그 32강에 합류한 H조의 포항 스틸러스는 오후 8시30분 광저우 에버그란데(중국)와 만만치 않은 원정 1차전을 벌인다. 포항은 22일 광저우로 출발한다. 조별리그 2차전도 곧바로 이어진다. 홈에서 1차전을 치른 전북과 수원은 나란히 중국 원정을 떠난다. 전북은 장수FC와 3월 1일 맞붙고, 수원은 3월 2일 상하이 상강과 대결한다. 반대로 원정으로 1차전을 소화하는 서울과 포항은 각각 3월 1일과 2일 홈에서 2차전이 예정돼 있다. 서울은 1일 산프레체 히로시마, 포항은 2일 우라와 레즈(이상 일본)와 만난다.

K리그 클래식은 다음달 12~13일 치러지는 1라운드 경기를 통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12일에는 지난해 클래식 우승팀 전북과 FA컵 우승팀 서울이 공식 개막전을 치른다. 비시즌에 알차게 전력을 보강한 두 팀의 첫 대결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챌린지(2부리그)에서 승격한 수원FC와 상주상무가 가세하는 클래식은 팀당 정규리그 33경기를 치른 뒤 상위(1~6위)와 하위(7~12위)로 나눈 스플릿라운드(팀당 5경기)를 거쳐 우승팀을 가리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챌린지는 11팀이 44라운드 경기를 통해 1부리그 승격의 기회를 노린다. 챌린지는 다음달 26일부터 시작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레알 마드리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가 18일(한국시간)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AS로마와의 2015~2016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원정 1차전 후반 12분 결승골을 터트린 뒤 포효하고 있다. 로마(이탈리아) | AP뉴시스

취재진 도발도… 상대 팬 야유도…

호날두 ‘골 본능’ 막지 못했다

불편한 질문에 기자회견장 박차고 나가
챔스리그 16강 AS로마전 결승골 작렬

슈퍼스타는 역시 달랐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세계적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18일(한국시간)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2015~201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AS로마(이탈리아)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12분 환상적인 슈팅으로 결승골을 뽑았다. 호날두의 결승골에 힘입어 레알 마드리드는 2-0 승리를 거두고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양 팀의 2차전은 3월 9일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진다.

호날두는 이날 경기에 앞서 제대로 ‘열이 받은’ 상태였다. 그는 경기 전날인 17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불화설이 돌고 있는 팀 동료 가레스 베일(가레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왜 원정경기에선 골이 적은가’라는 취재진의 도발적인 질문이 이어지자, “나보다 원정경기에서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또 있느냐. 불편해서 인터뷰를 더 못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경기에서 홈팀인 AS로마 팬들은 호날두가 볼을 잡을 때마다 엄청난 야유를 쏟아냈다.

그러나 취재진의 불편한 질문도, AS로마 팬들의 야유도 호날두의 경기력을 떨어트리지는 못했다. 전반에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던 호날두는 후반 12분 마르셀루(브라질)의 패스를 받아 특유의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제친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AS로마 골망을 흔들었다. ‘원정경기에서 골이 적다’는 비판을 쏙 들어가게 만드는 환상적인 골이었다. 호날두는 자신에 대한 비난과 야유를 실력으로 잠재우면서 왜 자신이 슈퍼스타인지를 재입증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41분 교체 멤버 헤세 로드리게스(스페인)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귀중한 원정 승리를 챙겼다.

한편 볼프스부르크(독일)는 겐트(벨기에)와의 원정경기에서 율리안 드락슬러(독일)의 멀티골에 힘입어 3-2로 승리했다. 양 팀의 2차전도 3월 9일 볼프스부르크의 홈구장 폭스바겐 아레나에서 펼쳐진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메시 ‘300골’

스포르팅 히혼전 300·301호골

의도적인 ‘페널티킥 도움’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사진)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개인통산 300골이라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았다.

메시는 18일(한국시간) 엘 몰리뇨에서 열린 2015~2016시즌 프리메라리가 스포르팅 히혼과의 원정경기에서 2골을 몰아치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FC바르셀로나의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일정 탓에 이날 뒤늦게 열린 16라운드 경기에서 메시는 전반 25분 프리메라리가 개인통산 300호 골을 터트린 데 이어 전반 31분 추가골까지 넣으며 대기록 달성을 자축했다.

300호 골은 운이 따랐다.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공을 잡아 장기인 왼발로 날린 슛이 수비수의 몸을 맞고 살짝 굴절된 뒤 골망을 흔들었다. 2004년부터 FC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메시는 프리메라리가 사상 최초로 개인통산 300골의 주인공이 됐다. 334경기만에 일군 대기록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메시는 직전 경기였던 셀타 비고와의 24라운드에서 페널티킥을 직접 차 넣을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수아레스(29)에게 패스하는 ‘규정 내 편법’으로 적잖은 비난을 받았다. 셀타 비고전에서 메시의 ‘페널티킥 도움’을 얻은 수아레스가 히혼전 메시의 2골 모두를 어시스트한 점은 우연치고는 묘한 느낌이 들 정도다. 1골·2도움을 기록한 수아레스는 2골을 몰아친 메시 못지않은 박수를 받으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FC바르셀로나는 19승3무2패(승점 60)로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17승3무4패·승점 54)와의 승점차를 6으로 벌렸다. 3위 레알 마드리드(16승5무3패·승점 53)와는 7점차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